구미 카페, 2015년 김재원 작. (Ipad Procreate)



# 제 1 **장** 로드맵 정하기

지금 이 책을 선택한 독자분들이라면 막연히 이민에 관한 꿈을 꾸고 있거나. 아니면 유학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치과대학 학생이거나 전공의일 수도 있고, 개워한 지 10년 넘으신 분 일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것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기회는 똑같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면 안 되는데. 바로 자기가 원하는 최종 정착지가 어디냐인 것 이다

필자는 어려운 캐나다 치과의사 면허시험을 모두 통과한 후 꿈에 부풀어 일하다가 현실을 알게 된 후 다시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을 알고 있다. 필자도 가끔은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 기도 한다. 하지만 캐나다 시골에서 일하면서 한국보다 수입이 적음에도 만족하면서 사는 분 의 얘기도 들었다. 개인의 선택일 뿐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하지만 자기가 어떤 식으로 나중에 정착할지에 대해서는 유학준비라든지 유학 중 삶의 방식 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꼭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물론 북미 생활 중에도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그에 대한 대처는 그때 생각하면 된다.



Red rocks Amphitheater, Morrison, 콜로라도.



Garden of the Gods, Colorado Springs, 콜로라도.

## 이 영어 및 영주권

일단 필자는 영어가 가능한지, 영주권이 있는지부터 물어보고 싶다. 시민권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주권은 permanent resident 또는 green card라 하여 그 나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승인을 국가에서 받은 것이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는 그 나라에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사라지게 된다. 영주권을 받고 오래 거주할 경우, 시민권(citizenship)을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5년 거주하면 가능하며, 캐나다의 경우 5년 중 3년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나라의 여권(passport) 발급이 가능한지,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지의 유무이다. 영어가 가능하고 영주권이 이미 있다면 매우 수월하고 그렇지 않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영어가 안된다면 캐나다나 미국이나 면접 및 취업에서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한국 환자만을 보면서 잘지내시는 원장님도 봤다. 이 부분은 이후에 더 서술하겠다.

영어는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필자의 경우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TOEFL)을 치기 위해 캐나다에 거주하며 한 달 정도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영어강사와 화상통화로 공부하며 준비했고,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IELTS)의 경우 서울 강남역에 있는 학원을 주말에 한 달간 다니며 준비했으며, 2번의 시험을 보았다.



Mount St. Helens, 워싱턴. 가장 최근 분화한 것은 2008년이다.

IELTS의 경우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하다. 또한 캐나다에서 직장을 구할 때 이력서에 써놓으면 유용하다. 필자의 경우 첫 번째는 7.5, 두 번째는 8.0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어야 인터뷰 및 환자를 볼 때 막힘이 없을 것 이다. 이외에도 북미의 공공기관 방문, 입 국 시 심사관들을 상대, 억울한 일을 당 해 항의할 때도 모두 영어로 얘기해야 하 니 그 중요성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모자 라지 않다.

### 오 돈 ....

아직까지도 치과의사라는 직종은 한국에서 남부럽지 않게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나,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많은 경제적 소모를 필요로 한다. 필자는 캐나다로 갈 때, 미국으로 갈 때도 어느 정도 은행에 저축해놓은 금액이 있어 초기 정착금으로 썼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치과의사라서 추가로 캐나다 Scotiabank에서 2억 넘는 은행 대출을 받았고 아파트를 마침 팔게 되어서 미국 유학비를 충당할 수 있었지만 한국의 개원한 동기들이 재산을 차곡차곡 모아갈 때 북미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원래 집이 부자이거나, 그동안 많은 재산을 모았다면 수월할 것이다. 하지만 돈이 없는 학생신분이라고 유학이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이 누리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문교,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헐리웃 사인, Los Angeles, 캘리포니아.

# o 건강과 체력

유학지침서에서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외지에서 살면 고달프고 북 미는 의사를 만나기 쉬운 곳이 절대 아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바뀐 환경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한국 마트와 한인 식당이 있긴 하지만 가격이 만 만치 않다. 만약 병의원 방문이 잦은 분이시라면 이민은 다시 한 번 고려해보라고 하고 싶다. 미국에 자리잡은 후에도 건강검진을 위해 내시경이라도 하려면 한국에 방문해야 한다. 캐나 다와 미국은 크게 아프지 않으면 큰 시술은 해주지 않는다. 이와 못지않게 체력관리도 중요하 다. 평상시에 골프, 등산 같은 운동을 자주하고 즐긴다면 북미처럼 좋은 곳이 없다. 그리고 사 격, 사냥, 활쏘기 같은 한국에서 조금 하기 힘든 레포츠도 간편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UCLA 대학 치주과 디렉터인 Dr. Hamada 교수와 함께. 이분도 일본에서 구강외과 수련 후 인디애나 대학에서 치주과를 수련하셨다.



영화 '대부' 전시, 아카데미 뮤지엄, Los Angeles, 캘리포니아.

## 이 인생의 동반자의 의견

현재 교제 중인 이성이나 가족이 있다면 충분한 토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경우 교제하는 여성분 그 누구도 외국에 이민을 가고 싶어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성공적인 커리어 를 쌓고도. 자녀가 학교에 적응을 잘해도 배우자가 한국에 돌아가기를 원하여 많은 분들이 귀 국하시다 주 이유는 배우자가 크게 할일이 없고 외롭다는 것이다. 혼자이신 분들은 물론 북 미 현지에서도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나 그곳은 우리나라보다 인구밀도도 적고 소개팅 같은 것을 시켜주는 문화도 아니다. 주로 어플이나 교회, 돈을 내고 가입하는 매칭 사이트를 통해 상대방을 만나는 것 같다. 물론 한국처럼 특정 나이대에 결혼을 못했다 하여 크게 이상 하게 보는 분위기는 아니다.



# o 부모님과 친구들

한국은 유난히 가족적인 분위기인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한 주보다도 적은 땅덩 어리를 가진 나라 아니던가! 그런데 인구는 훨씬 많고 제일 먼 거리를 계산할 때 서울-부산 정도인데 400km의 거리를 4시간 운전해가지 않은가? 그나마 KTX가 있으니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가장 멀다는 제주도도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가는데. 이렇게 높은 인구밀 도와 작은 땅 크기는 사람들을 더 가깝게. 자주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문제는 이런 문화에 익 숙한 분들은 북미 생활에 적응이 힘들 수 있다. 일단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비행기 좌석 4 개를 북미까지 예매해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도 명절마다 가족들을 보기 위해 공항이 북적거린다. 제일 특이했던 것은 베쿠버에 있었을 때 설 명절 때 중국인들이 대 거 방문하여 공항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고 교통도 통제되었던 것이다. 일단 부모님과 친 구들을 자주 방문하기는 어려워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자. 연세가 들어가시는 부모님 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이민자들의 단골 주제이다. 필자가 만난 어떤 분은 부모님이 이미 고국에서 건강이 나빠 오랫동안 입원 후 돌아가셨을 때 잠시 귀국하여 장례를 치르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일하기도 하였고. 어떤 교수님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부모님 을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었다.

# o 귀국인가 현지 정착인가?

유학이나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공의 과정을 현지에서 할 때도 이는 중요하다. 만약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면 필자가 했던 과정인 EB-2 National Interest Waiver(NIW)를 고 려해 볼 수 있는데, 논문 출판 및 국내·외 교수님들과의 인맥 관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 즉, 한국에서의 석·박사 과정 중 출판을 많이 해놓는 것이 좋으며, 미국에서 전공의 생활을 한다 면 방학 때나 학기 중이나 쉬지 않고 교수님들 실험실에 가서 열심히 논문을 쓰고 실험을 해 야 한다. 여기에 더해 교내 및 북미 학회에 있는 대회에 참석해야 하며, 성과를 내는 것도 중 요해진다. 그런데 그냥 귀국할 생각이라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살아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 다. 또한 NIW가 안 되더라도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PERM) 과정이 라 하여 고용주에게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고 이 과정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알고 있으니 너 무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



타임 스퀘어, 뉴욕.

# 와 이민을 가는가?

#### 왜 이민을 가고 싶은가요?

- 새로운 도전
-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싫어서
- 큰집과 대자연이 좋아서
- 그냥 북미가 멋져보여서
- 공기와 물이 깨끗해서
- 한국의 의료현실이 싫어서
- 여가시간을 더 즐기고 싶어서

### 이민을 감으로써 포기해야 할 것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초기 정착비용
- 친구들과의 술자리
- 국내 여행(멀게는 아시아 여행)
- 연세가 들어가는 부모님과 자주 뵙기
- 빠른 공공기관 업무처리
- 빠르고 저렴하게 의사진료 받기
- 밤에 배달음식 시켜 먹기
- 나에게 익숙한 모든 것

	캐나다	미국
장점	<ul> <li>깨끗한 물, 공기, 넘치는 공간과 대자연</li> <li>하이킹 및 레포츠 천국</li> <li>나름 친절한 국민들</li> <li>무상의료</li> </ul>	<ul> <li>깨끗한 물, 공기, 넘치는 공간, 관광지 및 국립공원</li> <li>나름 친절한 국민들(소도시)</li> <li>캐나다보다는 합리적인 공공기관 일처리</li> <li>50개가 넘는 주에서의 다양성, 갈 곳은 항상 있다.</li> <li>직장이 많으니 일자리 구하기는 상대적으로 수월</li> <li>유럽과 남미가 가깝다.</li> <li>모든 명문대는 다 있다.</li> <li>문화의 중심지</li> </ul>
단점	<ul> <li>벤쿠버와 토론토 같은 대도시를 제외한모든 곳은 외로울 것이다.</li> <li>대도시 지역은 치과의사가 이미 포화상태</li> <li>문화적 다양성이 미국에 비해 떨어진다.</li> <li>항상 뭔가 변두리에서 살고 있는 느낌</li> <li>의사를 만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li> <li>캐나다에서 치료를 못 받고 미국에 가서치료받고 오는 분들도 많다.</li> <li>마약이 합법이다.</li> </ul>	<ul> <li>의사를 만나기 힘들다. 의료비는 비싸나 보험에 들면 본인 부담은 적다.</li> <li>행정적인 면에서 답답한 일처리는 캐나다 보다는 덜하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li> <li>일자리에서 쉽게 해고당하는 편이다.</li> <li>마약이 합법이다.</li> <li>총기사고가 거의 매일 일어난다.</li> <li>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li> <li>대도시와 소도시의 생활비 및 부동산시가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학군이 좋은 곳은 특히 더 비싸다.</li> </ul>

사람마다 이유가 다르고 정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다. 역이민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980년대부터 이민을 와서 사는 분들도 봤다. 단순히 이민에 대한 장점에 대해 나열하자면 한 도 끝도 없다 제일 기본적인 의식주부터 말해보자면 한국식의 편리한 아파트 문화는 미국도 따라잡기 힘들다. 필자가 2022년 잠시 귀국했을 때 부모님 아파트의 이중 전자 보안장치 문을 보고 신기했던 적이 있다. 뭐 하나 고쳐달라고 하면 바로 와서 고쳐주고…. 하지만 미국과 캐 나다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은 바로 '공간'이다. 모든 공간들이 넓고 트여 있으며, 아파 트 천장도 높다. 하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곳으로 갈수록 이 장점은 사라진다. 공간이 많다는 얘기는 어디 가야할 때 이동거리도 길다는 뜻이다. 즉. 이 넓은 공간은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 겠다. 장보는 것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나라 마트를 가든 선택의 여지는 넓 다. 굳이 한식만을 고집하며 먹을 필요는 없지만, 바꿔 말하면 매번 한식을 먹고 싶다면 한인 마트를 꼭 가야한다. 마트도 저가형 마트에서 고가형 마트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 선택하면 되 는데. 당연히 유기농과 건강식들은 다 비싸며. 건강에 좋지 않은 식재료 및 식품들은 다 싼 편 이다. 또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국인 곳이 이곳이다. 지역에서 제조한 독특한 맛의 맥 주부터 와인까지 다 있으니….

북미 또한 아이를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곳이다. 특히 스포츠활동에 많은 관심이 있어 여기에 맞춰 부모님이 자녀를 픽업 및 드랍하는건 너무나 흔한 일이다. 또한 한국처럼 어린 나



Wichita Wildlife Refuge, 오클라호마.



Cleveland Museum of Art.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이에 무한경쟁을 시킬 필요가 없다. 서 울에 있는 유명고등학교 및 학군에서 공부해야 좋은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 는데, 북미는 대학교도 많고 과도 많으 니 선택의 폭 역시 넓다. 또한 중요한 것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렇게 눈치 주는 곳도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만난 미국·캐나다인들 은 모두 대학을 나왔던 것 같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 라는 것은 최고의 장점인 것 같다. 멋 진 옷 입고 다닐 이유도 없고. 입어도 봐줄 사람이 없다. 직장에서는 수술복 을 입고 출퇴근하니…. 게다가 비만인 사람도 많은데, 왜들 다 그렇게 평범하 게 입어도 멋지게 보일 수 있는지 모르

겠다. 필자가 저렇게 입으면 절대 그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 텐데. 또한 매주 술을 먹으며 단합 대회 할 필요가 없다 필자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이 그리워질 정도이니. 여기선 직장 내 행사는 명절 및 기념일에 가끔씩 모여서 밥 한 번 먹는 게 전부였다.

또한 중요한 것 중 하나라 생각되는 것은 공공장소나 업무를 볼 때 상대방에 대한 예절이 다. 물론 이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사는 곳의 경우, 서로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하고 문을 열어준다든지. 박물관이나 공원에서 아이가 크게 떠들지 않게 한다든지. 심 지어 장을 볼 때도 물건에서 멀리서 떨어져서 구경 중인데. 내 앞을 상대방이 지나갈 때는 'I am sorry'를 하며 지나치는 이런 상대방에 대한 사소한 배려는 미국 이상의 나라를 본 적이 없다. 주어진 자유 내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 력하는 문화에 익숙해지면 그렇게 편리한 것이 없다. 물론 이것은 인종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 이 필자의 격해이다.

공기는 정말로 한국이 절대 따라올 수 있는 질이 아니다. 한국은 OECD 국가에서 초미세먼 지 농도 2등을 한 나라다. 그린피스의 보고에 따르면, 총 73개의 나라에서 캐나다와 미국이 각각 66위와 65위이다 국제에너지 기구(IEA)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에 의하면 대기 오염 수준이 제일 낮은 나라 3위는 캐나다이며 4위가 미국이다. 필자가 살면서도 공기 자체가 답답했던 날들은 사막에서 모래폭풍이 올라오거나 산불의 연기가 내려오는 등의 이유 때문이. 었고, 이마저도 1년 중 극소수의 날들이었다.

필자는 현재 미국에서 일하는 중이라 캐나다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 겠지만, 미국이 캐나다보다 나은 것 하나만 말하라면, 바로 문화의 힘이다. 베쿠버에 거주할 때 미술관에서 유명 화가 전시회를 해서 관람을 해보면 그 내용의 빈약함에 실망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피카소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주요 작품은 하나도 없고 전혀 유명하지 않은 작품 몇점 올려놓은 것이 전부였다. 한국이 서울에 주요 전시회와 문화적 요소 가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주요 도시에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을 가보면 그 규모와 웅장함에 놀라울 뿐이다. 특히 클리블랜드가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 고 미술관의 실내공원 같은 분위기는 아직도 기억이 나며, 별 기대 안하고 갔다가 크게 감탄 했던 기억이 있다. 게다가 좋은 것은 사람도 별로 없다는 것! 또한 특이하게도 락앤롤 뮤지엄 이 있었는데, 90년대에 이런 음악에 심취해 있던 필자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음악 얘기를 하자니 시애틀의 미술관에서 본 유명 락그룹 '너바나'의 전시회도 기억에 남는다. 여기에 음악.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 관심이 있다면 그 본고장인 미국을 빼놓을 수 없다. 살면서 미국 영화 한번 안 본 분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지는지 궁금하 다면 헐리우드가 있는 로스에젤레스를 방문해야 한다. 여기서 본 영화 '대부'의 전시회는 정말 인상 깊었다.

자연경관은 또 볼 것이 어찌나 많은지! 산, 폭포, 사막, 숲, 평원, 호수, 바다 등 모든 지형을 다 갖춘 곳이 미국이다 필자는 자연경관은 본격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뭐 유명한 국립공원 만 해도 죽기 전에 다 가보기가 힘들 정도이니…. 게다가 알칸소나 뉴욕 주처럼 별로 알려져 있 지 않은 곳도 좋은 곳이 많다. 이것은 캐나다도 마찬가지이다. 하이킹이나 낚시를 좋아한다면 이보다 더 천국은 없다. 게다가 수입이 많다면 보트를 사서 타고 다닐 수 있다. 또한 경비행기 면허를 따는 것도 가능한데. 이것은 필자가 나중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중 하나이다. 비행 기 운전이 취미인 필자의 친구 말로는 직접 비행기를 몰고 출퇴근 하는 의사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시간 확보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것도 장점이다. 한국은 휴가를 내고 해외로 갈 경우 가까운 나라를 제외한 다른 곳들은 비행기를 타고 장거 리 이동을 해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모든 곳이 비행기로는 크게 멀지 않아 빠른 시간 내 에 관광이 가능하다. 남아메리카, 아이슬란드, 유럽도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다. 미국은 휴 일에는 무조건 쉬며. 주말이 끼어있을 경우 월요일에 꼭 쉰다. 필자가 있는 곳은 개인 치과 같 은 경우에도 야간진료를 하는 곳을 본적이 없다. 또한 수가가 높아서 일을 적게 해도 되지만 그만큼 위임진료가 힘든 곳이기도 하다. 물론 이는 대도시에서는 다르다. 벤쿠버 같은 경우 경 쟁이 높은 지역이라 주말진료에 야간진료를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

#### ■ 수가표 비교

	한국	미국 (수가 상위 70% 내)
일반검진	15,490원	\$88
전체검진	29,340원	\$105
단순발치	24,040원	\$219
외과적 발치	49,870원	\$319
임플란트	치과별로 다름	\$2,137
플랩(gingival flap procedure)	82,630원	\$845 (치아 4개 이상)
골성형술(osseous surgery)	91,300원	\$1,265 (치아 4개 이상)
Guided tissue regeneration	115,490원	\$789
Guided bone regeneration	150,750원	\$2,815
Free gingival graft	161,970원	\$1,130
치관확장술	126,890원	\$877

<sup>\*</sup>전치부/구치부가 나뉜 부분은 구치부 기준.

(출처: 건강보험공단, The University of Oklahoma College of Dentistry.)

그렇다면 단점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 겪기 힘든 자연재해가 매년 일어 나는 곳이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은 주로 봄에 발생하며 미국 중부에 위치한 주들이 주로 피해를 본다. 동부 같은 경우 겨울에 상당히 춥고 폭설이 자주 내린다. 즉, 미국에 어느 지역 에 정착느냐에 따라 특정 기후를 경험할 수 있으니, 골라 가면 될 듯한데 각 주마다 그에 대 하여 대비를 해놓기 때문에 크게 생활에 불편함은 없었고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재해를 겪 은 적은 아직 없다.

미국의 치안은 대체로 좋지 않기로 유명하지만, 밤에는 돌아다닐 이유가 없고 나갈 수도 없다. 필자가 살던 동네는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마약은 이미 사 회 곳곳에 퍼져 있으나 필자 주변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사람의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



Oklahoma Contemporary Arts Center, 오클라호마시티, 오클라호마.

이 없다. 총기 사고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지만 미국의 땅덩어리는 그만큼 크고 인구가 많으 니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것 같다.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진 곳 역시 미국이며, 이후 에도 서술하지만 불편한 것이 많다. 일단 한국처럼 길거리로 나가면 바로 의원을 찾을 수 있 는 곳이 아니다.

미국 내 어딜 가야할 때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큰 고역인데, 일단 한국의 쾌적한 고속버 스나 고속열차보다도 못한 좌석에서 덩치 큰 승객들과 함께 몇 시간 동안 불편함을 참으며 가 는 문화가 미국 비행문화의 현주소이다. 또한 경유라도 하게 되면 뭔가 일이 생길까봐 조마조 마하다. 게다가 불친절한 항공사 직원들은 덤이고. 물론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한다면 돈을 더 내면 된다!

# 이 필자의 인생

필자의 인생을 참고로 독자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

1981년생인 필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서울에서 평범하게 지내다가 해외근무발령을 받 은 아버지를 따라 유럽에 가서 약 5년 정도 국제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이 덕분에 필자는 처음 으로 미국 문화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교사들이 모두 미국 출신이었기 때문에 미국 식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서울에서 고교 2년을 재학한 후 치과대학에 입학하였 다. 치과대학에서는 클래식 기타 동아리 활동만 열심히 하던 하위권 성적 학생이었으며 수련 이나 개원, 유학 등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과 4학년이 되자 막상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자각을 하고 종 합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인정의 과정을 4년간 받게 된다. 아울러 치과대학 석사과정도 하였다. 수련과정을 마친 후 경기도에서 공중보건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필자의 인생에 중대한 전환점 을 맞게 되었는데, 바로 다른 대학교를 나온 치과의사들과의 교류를 하게 된 것이었다. 봉사 활동을 같이 하며 자연스럽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해부학교실 박사과정을 하게 되었다. 이때 필자가 느꼈던 부러움이란! 훌륭한 교수님들과 열심히 일하는 연구진, 충분한 시설과 예산이 만날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단순히 개원하는 것이 아닌 연구자로서 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공중보건의 2년차에 캐나다 치과의사 면허시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전을 결 심하게 된다. 시험을 치는 기간은 2012~2013년, 준비 기간까지 합해서 2년이 걸렸다.

처음에는 일단 시험만 쳐놓을까 생각했으나. 캐나다 영주권 신청 자격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Provintial nominee program(PNP)도 같이 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한 이민법인을 통 해 진행하였는데. 법인의 권유에 따라 IELTS 시험을 쳐서 필요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 놓 았다. 그러나 갑자기 캐나다 정부에서 중국. 인도계 이민자들의 주요 이민수단이었던 PNP을 없애는 바람에 그 동안 진행되던 이민과정이 막히게 되었다. 이민법인과 상의한 끝에 고용주 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진행해보기로 하고. 우선 벤쿠버에 있는 한 개인치 과병원과 협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별 진전이 없던 중, 별도로 추진하였던 Express entry program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되었고(다시 IELTS를 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6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이후 벤쿠버의 치과에서 파 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미국 버지니아에서 치주과를 수련한 치과의사를 만 나 미국치과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접하면서 미국 진출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 었고. 즉시 준비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TOEFL 성적을 받은 후 여러 치과대학에 National Board Dental Examination(NBDE) 점수 없이 지원을 해보았는데. 로체스터와 버팔로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최종적으로 버팔로에 합격하게 되었다. 2018년 6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버팔로에서 3년의 치주과 수련과정과 2년의 석사과정을 하게 되었고. 이때 미국 치과 의사 면허도 취득하였다. 이후 미국 치과계에 계속 근무할 목적으로 여러 곳에 지워서를 냈으 며 2021년 오클라호마 치과대학 치주과의 임상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이후 미국 및 캐나다 전 문의 시험에 합격하였고, 미국 이민을 신청, 2023년도 3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다.